



신산업무역회의 / 전문위원회

#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에 있어서의 공통전문자격제도 창설

2011 년 2 월 25일

주식회사 월드 플레닝

대표이사 요시오카 마사유키

# 목 차

## Part Ⅰ .한일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의 공통자격제도 창설

1-1	한일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에 있어서의 공통자격제도 구상의 배경
1-2	한일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에 있어서의 공통자격제도의 목적과 방법
1-3	한일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에 있어서의 공통자격제도 창설의 의의
1-4	한일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에 있어서의 공통자격제도 창설의 이미지도
1-5	한일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에 있어서의 공통자격제도 창설의 효과

## Part 2 .한국과 일본의 요양보호 환경

2-1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
2-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제도 등의 유사성과 상이성
2-3	한국과 일본의 요양보호직의 종류와 인원수

## Part Ⅲ .아시아케어 구상

3-1	아시아케어 구상을 위한 활동계획 Ⅰ
3-2	아시아케어 구상을 위한 활동계획 Ⅱ
3-3	한일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에 있어서의 공통자격제도 창설을 위한 모델사업
3-4	한일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에 있어서의 공통자격제도의 수험자격
3-5	아시아케어 구상을 위한 활동계획 Ⅲ
3-6	한일간의 아시아 요양보호협회(가칭)의 주요 역할(이미지도)
3-7	한일관계학회
3-8	요양보호 레벨로서의 국제화 모델의 일례
3-9	요양보호인재의 연수 및 취로

## Part Ⅳ .한국의 요양보호 비즈니스 육성

【참고】 일본치매케어학회 인정자격 「치매케어전문사」의 실적사례

# I. 한일 고령자요양보호복지에 있어서의 공통 전문자격제도 창설

## 1. 한일 고령자요양보호복지의 공통전문자격제도 구상의 배경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로 고대부터 교류가 활발했으며 농작문화, 한자, 불교 등 공통의 문화를 공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부모의 노후는 당연히 가족이 보살펴야 한다고 되어 왔다.

○한일양국의 고령자 요양보호는 일본은 1963년, 한국은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가족의 요양보호에서 사회의 책임으로서 시대의 니즈에 맞추어 변화되어 왔다.

○양국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일본은 2000년 요양보호제도를, 한국은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정하여 요양보호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의 Long-Term Care Insurance은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의료·산재·고용보험에 이어서 제5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요양보호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양국의 Long-Term Care Insurance의 배경에는 인구의 고령화·핵가족화·고령자의 의료비 증가 등의 공통 과제를 들 수 있다.

○양국은 Long-Term Care Insurance에서 「요양보호 서비스 질의 문제」「전문 인재육성」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한일양국은 공통된 요양보호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의 표준화·전문화」를 도모 하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 한일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의 공통전문자격제도 창설의 목적과 방법

### 목적

한일양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요양보호의 다양한 문제를「**요양보호의 표준화**」 및 「**요양보호의 전문화**」를 실시함으로써 양국의 케어의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사회의 케어의 발전에 공헌한다.

### 방법

한일양국에 있어 치매고령자의 케어에 대한 공통의 자격제도(「**국제치매 케어 전문사의 자격제도(가칭)**」)를 창설하여 치매 케어에 관한 전문가를 육성한다. 방법론으로서는 공통의 교과서를 사용하여 교육을 하고 케어의 이념·논리·지식·기술을 표준화한다. 또한 표준화에 있어서는 양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 등의 국가자격을 통일하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민간자격 등을 토대로 창설한다.

### 3. 한일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의 공통전문자격제도 창설 의의

왜 한일양국의 고령자 요양보호복지에 있어 공통전문자격제도의 창설이 필요한가?  
그 이유로서는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1. 아시아에서 사회의 고령화가 가장 빨라 심각한 요양보호문제에 공통의 대응이 가능하다.
  - ① 한일은 이웃나라로서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유사성이 많고 요양보호에 관한 협력관계를 갖기 쉽다.
  - ② 공통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요양보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정되어 요양보호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다.
2. 양국에 있어 요양보호의 표준화는 단일국가 개념의 근거에 기초한 세계적인 개념 구축의 초석이 된다.
  - ① 요양보호영역에서의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요양보호의 사상·논리·지식·기술의 객관적인 체계화가 가능하다.
  - ② 요양보호의 국제표준화는 요양보호 전문화의 기반이 된다.
3. 국제적인 요양보호 자격제도의 창설은 우수한 젊은 인재 육성의 계기가 된다.
  - ① 요양보호자격의 국제화는 요양보호영역의 확대와 다양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향후 성장하는 새롭고 매력 있는 직종이 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젊은 인재의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 ② 많은 요양보호인재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한 국가만의 우수한 인재육성에는 한계가 있다.
4. 본 기획은 양국의 요양보호 수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요양보호는 의료와 병행하여 매우 큰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를 조기에 간파하여 대응하는 것이 향후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도 커다란 메리트가 된다.

#### 4. 한일 고령자요양보호복지의 공통전문자격제도 창설 이미지도

아시아사회의 케어 질 향상:국제 치매케어전문사의 자격제도  
케어의 표준화 (Asia Care Standard)

한일양국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여러가지 고령자케어의 문제가 발생

양국의 사회,문화,제도 등의 유사성  
에서 고령자케어의 표준화를 추진

공통교과서를 사용한케어의  
이념,관리,지식,기술의 공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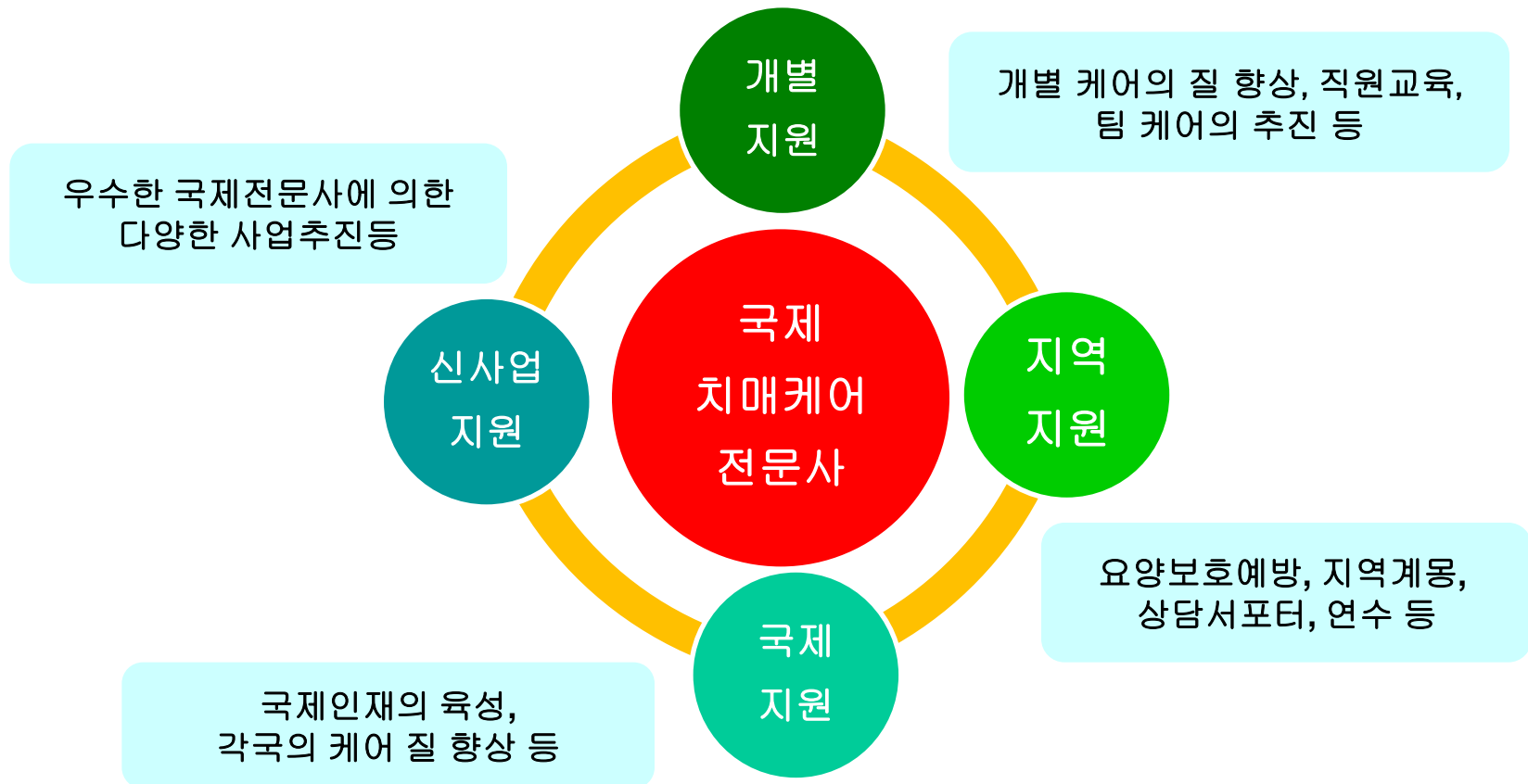
양국 고령자요양복지의 국제  
치매케어전문사 자격제도 창설

공통자격을 갖는  
국제치매케어전문사는  
자국의 케어발전과  
아시아사회의  
케어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

## 5. 한일 고령자요양보호복지의 공통전문자격제도 창설의 효과

### 새로운 케어 리더의 육성:

치매케어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고도의 기능 및 논리관을 구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치매케어의 기술 향상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지역, 국제 치매에 관한 보건·복지에 공헌한다.



## II. 하급의 영향과 환경

## 1.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 일본은 1970년의 고령화 사회(7%)에서 1994년의 고령화 사회(14%)가 되기까지 24년, 또한 초고령화 사회(20%)까지는 12년(2008년).
- 한국은 2000년의 고령화 사회(7%)에서 2018년의 고령화 사회가 되기까지 18년, 또한 초고령화 사회(20%)까지는 8년(2026년).

## 표 1. 한일 고령자 인구동태

	구분	198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일본	총인구	11,706	12,756	122,735	115,224	95,152
	고령자인구	1,064	2,941	3,580	3,667	3,764
	고령화율	9.1%	23.1%	29.2%	31.8%	39.6%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 (2006년 12월 추계)」						
한국	총인구	3,812	4,887	4,932	4,863	4,234
	고령자인구	146	537	782	1190	1,579
	고령화율	3.8%	11%	15.6%	24.3%	38.2%

통계청 (2006. 12) 장래인구추계 / 단위 : 만 명



## 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제도 등의 유사성과 상이성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은 사회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요양보호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 향후 양국은 고령화 진행「속도」에서 「양(필요한 고령자수의 많음과 중증화)」이 과제가 된다.
- 「요양보호 인프라의 기반정비」에서「요양보호 서비스 질」로 변화한다. 특히 치매고령자에 대한 대응은 요양보호의 질의 요점이 된다.
- 「요양보호 인재육성」에서 「요양보호 전문가 육성」으로 변화한다. 치매고령자의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전문인재육성이 요구된다
- 요양보호는「국내과제」에서「국제과제」로 확대되어 요양보호의 표준화가 진행된다. 향후 요양보호분야 있어서 이론체계의 표준화와 인재 등의 교류는 활발해져 간다.

### 3. 한국과 일본의 요양보호 전문직의 종류와 인원수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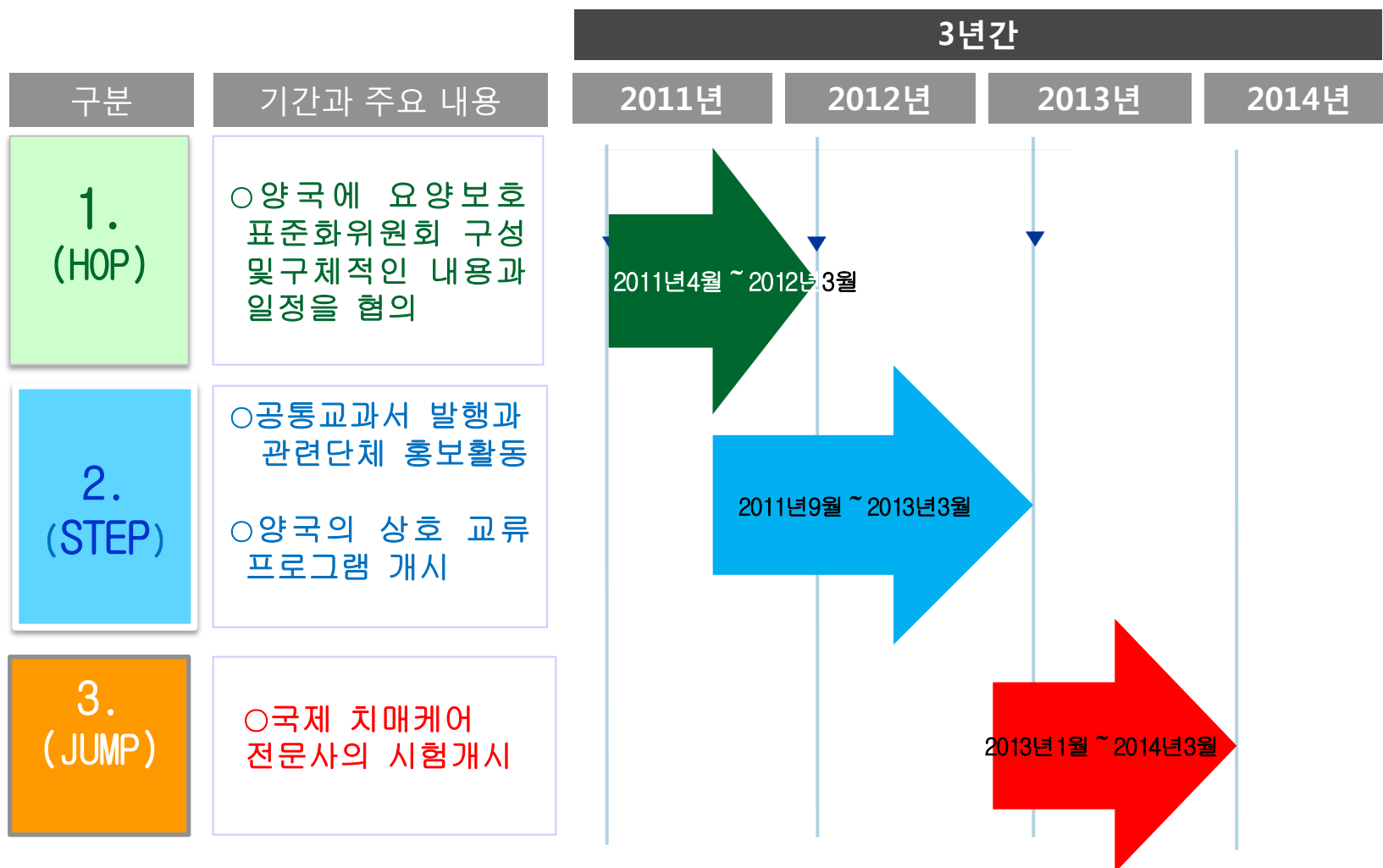
1. 사회복지사	122, 431인
2. 요양보호복지사	812, 152인
3. 정신보건복지사	43, 487인
4. 요양보호지원전문원 (케어 매니저)	494, 769인
5. 치매케어전문사	19, 976인
6. 복지주거환경 코디네이터 (1, 2급)	비공개
7. 임상심리사	21, 407인
8. 홈 헬퍼 (2 급)	2, 543, 287인

#### ●한국

1. 사회복지사	543, 505인
2. 요양보호사	900, 000인

# Ⅲ. 아시아 케어 구상

## 3-1. 아시아 케어 구상을 위한 활동계획 I



## 3-2. 아시아 케어 구상을 위한 활동계획 II

- 국제 치매케어 전문사자격의 창설까지의 기간을 3년으로 하고 1. Hop, 2. Step, 3. Jump의 3단계로 나누어 주요 Task와 Output을 나타냈다.

	1. HOP	2. STEP	3. JUMP
Ta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국에 요양보호표준화 위원회 구성</li> <li>○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협의 및 결정</li> <li>○실무팀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치매케어학회(아시 아 요양보호협회)의 발족</li> <li>○공통의 교과서 발행</li> <li>○각관련협회·기관에 홍보활동</li> <li>○상호 교류 프로그램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치매케어전문사의 시험개시</li> <li>○합격자 발표 및 오리엔테이션</li> <li>○국제치매케어전문사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 개시</li> </ul>
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요양보호 관련 학회 등의 참가의뢰 및 위원추천 의뢰</li> <li>● 한일요양보호시설에의 모델연수 참가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교류 촉진 및 관련 학회에서의 연구발표</li> <li>● 홍보자료의 제작·배포</li> <li>● 홈페이지 제작</li> <li>● 한일요양보호시설에서의 모델연수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관련학회에의 홍보 및 관계국 기관에의 보고 및 참가 의뢰</li> <li>● 국제치매케어전문사의 일반시설에 의 홍보</li> <li>● 국제치매케어전문사의 교류개시</li> </ul>

### 3-3. 한일 국제치매케어전문사 자격제도 창설을 위한 모델사업

■ 국제치매케어전문사자격 창설의 제2단계(Step)로 모델연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

	1. 일본	2. 한국
Ta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의 아시아요양보호협회는 한국의 요양보호 리더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3개 지역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li> <li>○한국내 케어연수 프로그램에 일본의 강사를 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아시아요양보호협회는 일본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요양보호 리더를 선발</li> <li>○일본연수 참가자에 대한 교육/파견</li> <li>○한국내 요양보호 리더 양성연수프로그램의 기획과 실시</li> </ul>
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실시</li> </ul>

### 3-4. 한일 국제치매케어전문사 자격제도의 수험자격

#### 1. 일본과 한국의 공통 수험자격

4 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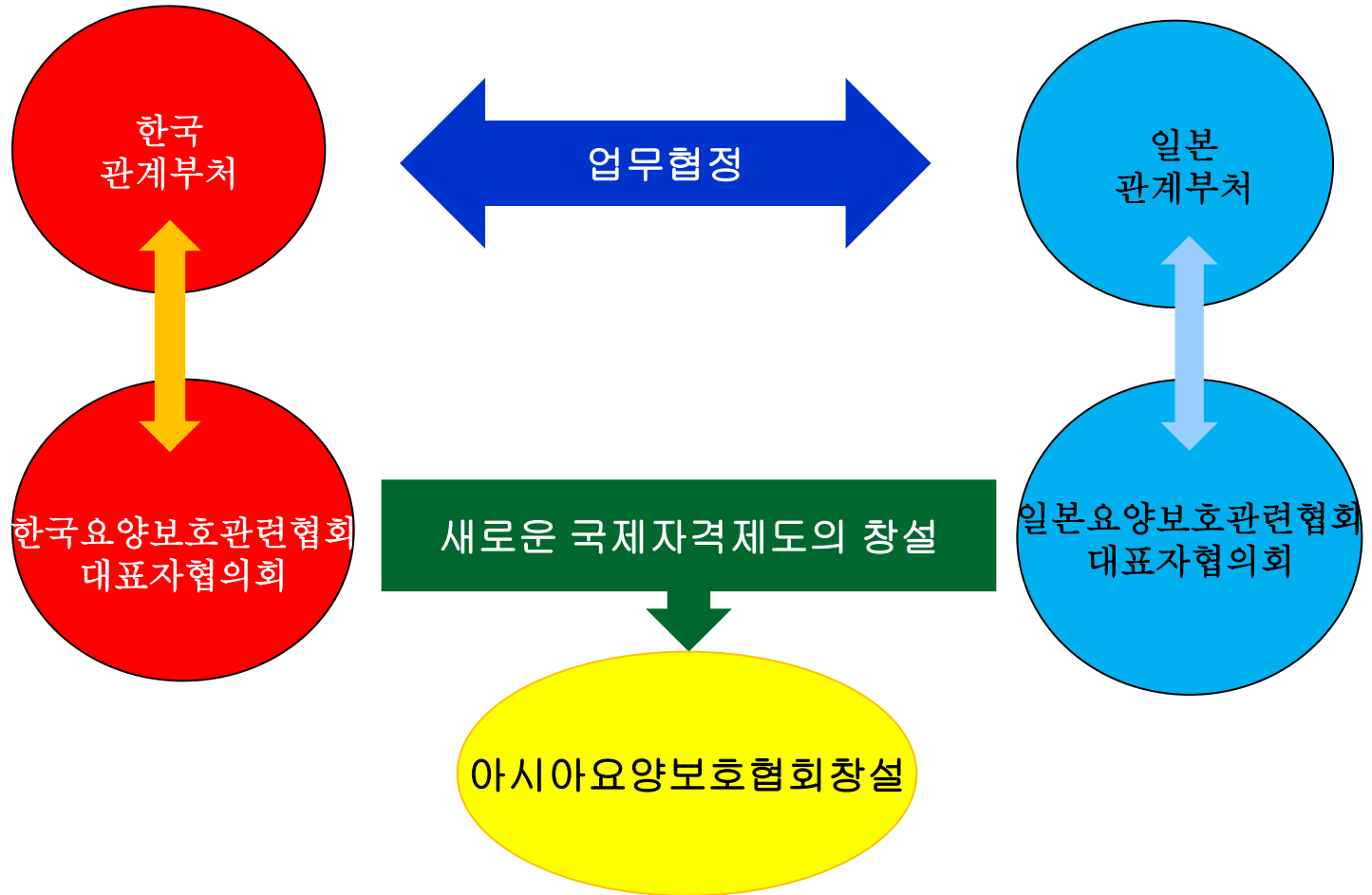
①현장경험이 3년 이상인 자

②전문학교 및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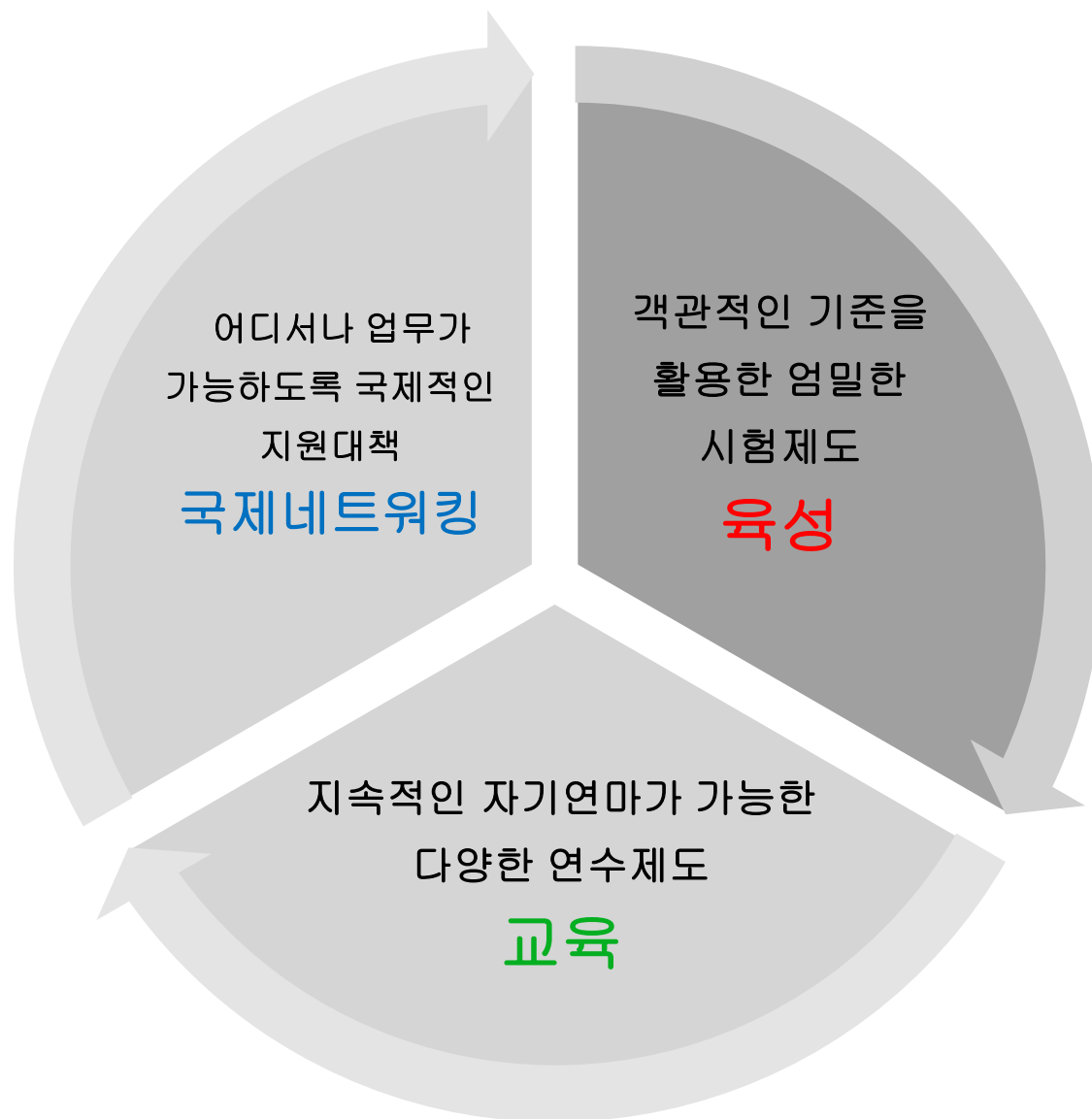
③자국의 요양보호관련 국가시험  
등에 합격한자

④소속기관 책임자의 추천을 받은  
자

### 3-5. 아시아케어 구상을 위한 활동계획 Ⅲ



### 3-6. 한일 아시아요양보호협회(가칭)의 주요 역할(이미지도)





### 3-7. 한일관계 학회

#### 일본

- 일본치매케어학회
- 일본노년사회과학회
- 일본요양보호복지학회
- 일본케어메니지먼트학회
- 일본노년간호학회
- 일본재택케어학회
- 일본지역간호학회
- 일본방문간호학회
- 일본노년정신의학회
- 일본치매학회                      **etc.**

#### 한국

- 한국노년학회
- 한국노년정신의학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간호협회                      **etc.**

### 3-8. 요양보호 노동레벨로서의 국제화 모델 사례

#### 국제조화화 모델로서의 ECC

- ▶ EU가 역내의 요양보호 확보를 위해 조화화(調和化)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 ▶ 그 결과 「유럽 요양보호인증」이라는 구상이 시작되었다.
- ▶ 요양보호노동을 7단계로 설정하여 가장 낮은 레벨에서 공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레벨 1

- 기초적 일반적 지식
- 단순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 기술
- 구조화된 직장에서 직접적인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 한다.

## 레벨 2

- 업무와 연구에 대한 기초적 사실 지식
- 단순한 규칙과 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활용할 시에 요구되는 기초적 인지적 실천적 기술
- 어느 정도 자립하면서도 감독하에 업무와 연구를 한다.

### 레벨 3

- 업무와 연구에 대한 사실·원리·과정·일반개념의 지식
- 기초적인 방법·도구·재료·정보를 선별하여 응용함으로써 업무를 완수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요구되는 범위의 인지적 실천적 기술
- 업무와 연구의 실행에 관해 책임을 진다. 문제해결 시에 자신의 행동을 환경에 적응시킨다.

### 레벨 4

- 업무와 연구분야의 폭넓은 맥락에 의한 사실적 이론적 지식
- 업무와 연구분야의 전문적인 문제해결 창출 시에 요구되는 어떤 범위의 인지적 실천적 기술
- 보통은 예측되어 있으나 변경대상도 되는 업무와 연구 맥락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기관리를 부과한다.  
다른 사람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와 연구활동의 평가와 개선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 레벨 5

- 업무와 연구분야의 포괄적 전문적 사실적 이론적 지식과 지식의 경계에 대한 자각
- 추상적인 문제의 창조적인 해결을 발전시켜 나갈 때에 요구되는 포괄적 범위의 인지적 실천적 기술
- 예측하지 않았던 변화가 있는 업무와 연구활동의 맥락에서 관리와 감독을 부가한다.  
자신과 타인이 완수한 것을 논평하여 발전시킨다.

## 레벨 6

- 이론과 원리의 중요한 이해를 업무와 연구분야의 선진지식
- 사후 부모연구의 전문분야에 복잡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 해결 시에 요구되는 선진적 기술, 입증하는 숙련기술, 기술혁신
- 예측할 수 없는 업무와 연구라는 맥락에서 책임을 지기위해서 복잡하고 기술적 전문적인 활동과 사업을 관리하는 개인과 집단의 전문적 발전 관리에 책임

## 레벨 7

-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 중 몇 가지는 독창적인 사고의 기초가 되는 업무와 연구분야의 최첨단 지식
- 새로운 지식 및 절차를 개발하거나 다른 분야의 지식을 통합 하기 위한 조사와 기술혁신에 있어 요구되는 전문적인 문제 해결기술
- 복잡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전략적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맥락에서 업무와 연구를 관리하고 변용시키는 조사를 포함한 업무나 연구 맥락의 최전선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과정 개발에 대해 권위, 기술혁신, 통합화, 지속적인 관여를 예시한다.

### 3-9. 요양보호인재의 연수 및 취로

#### 1) 요양보호인재의 연수

치매 케어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에서의 실천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수내용·기관 등에 대해서는 한일관계학회의 협의에 맡기게 되지만, 연수에는 기본적으로 국제치매케어전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와 실제로 근무하기 위한 연수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연수기간은 3개월~수년에 걸친 다양한 기간이 상정된다.

#### 2) 비자 취득

부문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연수를 비롯하여 취로를 위한 연수 등의 실시에 있어 한일 모두 비자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자의 종류(27종류)는 다음과 같다.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경영,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이전, 흥행, 기능,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제, 특정활동,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착자

## 1) 주요 비자의 종류

종 류	내 용
1. 교 수	일본의 대학 등에 근무하는 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해당. 여기에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해당 됨.
2. 연 구	일본의 공·사립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연구를 하는 활동이 해당. 공·사립기관은 개인경영이든 무관함. 보수를 받는 것이 포인트.
3. 교 육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어학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 문부성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 비자를 갖는 외국인의 증가가 예상 됨.
4. 기 술	자연계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배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비자. 대학은 일본, 해외 어느 쪽이나 상관없음.



종 류	내 용
5. 인문지식 국제업무	인문계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인문지식)와 번역, 통역, 해외거래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국제업무)가 있음. 국제업무에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6. 유 학	일본의 대학과 전문학교 등에서 공부하는 경우의 비자
7. 수 학	가장 많은 것은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한 비자임. 일본어학교의 커리큘럼은 1년 반부터 2년이 보통이기에 3, 4년간을 이 비자로 있을 수는 없음. 고등학교에서 배운 경우도 이 비자에 해당됨.
8. 연 수	일본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기능을 모국에서 도움되게 하기 위한 비자. 기능·기술 유학생이라고도 불림. 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노동의 대가로서 보수와 임금을 받을 수는 없음. 연수종료 후는 나중에 설명하는 특정활동 비자가 되어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IV. 한국에 있어서의 요양보호 비즈니스의 육성

### 1. 요양보호 비즈니스 분야

1. 재택 서비스: 헬퍼 파견 등
2. 배식 서비스/산업 급식
3. 유료 노인 양로원
4. 복지용구 관련:베드, 휠체어, 요양보호용품
5. 식품 관련:고령자용 식재
6. Toiletry:기저기, 패드 등
7. 주택 관련:리폼, 손잡이 등
8. 긴급통보서비스 관련:홈 시큐리티
9. 택배서비스 관련:편의점
10. 요양보호자동차 관련:휠체어용 자동차, 목욕 서비스 등
11. 반송서비스 관련:요양보호 택시

## 2. 요양보호기구 규격의 표준화

복지용구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JIS마크표시 대상품목이 아니었으나 2005년10월부터 신JIS제도에 의해 일부 복지용구는 JIS마크가 표시 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복지용구는 비교적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 JIS규격이 만들어 지지 않은 제품도 많지만 향후 일본복지용구·생활지원용구협회(JASPA)가 중심이 되어 규격원안이 작성되어 순차적으로 JIS로서 제정되어 갈 예정임.

## 3. 요양보호기구의 국제규격

국제규격을 제정하는 조직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있음. ISO는1947년에 설립되어 일본에서는 일본표준조사회(JISC)가 1952년에 가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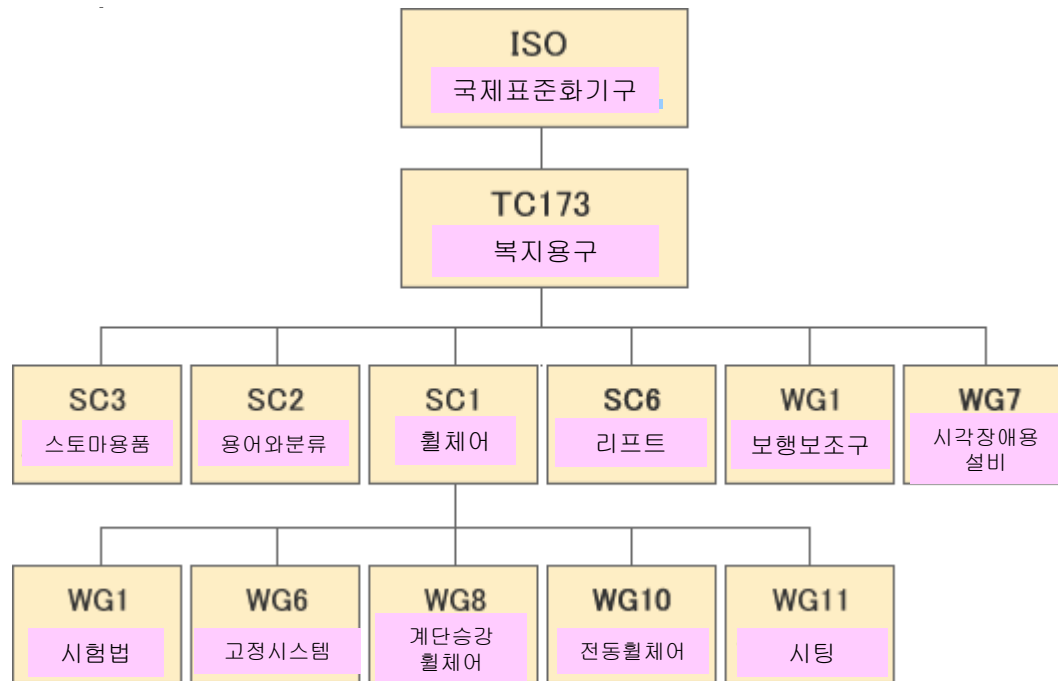
## 4. ISO의 조직



## 5. ISO의 복지용구 위원회

복지용구와 관련한 전문위원회는 TC173이 담당하고 있고 TC173에는 4개의 분과위원회(SC)와 2개의 WG가 있음.

이 중 SC1이 휠체어에 관한 규격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부조직으로서 실제의 규격원안 작성을 하는 작업그룹(WG)이 있고 현재 5개의 WG가 활동하고 있음.



# 【참고】일본치매케어학회 인정자료 「치매케어 전문사」의 실적 사례

## 1. 치매케어 전문사란?

치매케어전문사는 일본치매케어학회가 인정하는 치매케어에 대한 의학간호학, 영양보호복지학 등의 지식, 고도 케어기술, 및 논리관을 갖춘 전문가를 말함.

## 2. 치매케어 전문사 제도의 특징

치매케어전문사에게는 질 높은 치매케어의 실천을 위해 항상 자기자신의 케어를 점검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여 케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서 자격의 갱신을 의무화 하고 있음.

●인정기간은 5년간으로 하여 갱신을 위해서는 강좌, 사례·논문발표 등 평생 학습에 의해 학점(30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됨.

### 3. 치매케어 전문사의 보유자격

자격명칭	인 (%)
요양보호복지사	12,043(61.2)
요양보호지원전문원	11,392(57.9)
홈 헬퍼	6,822(34.7)
간호사	4,772(24.2)
복지주거환경코디네이터	3,613(18.4)
사회복지사	1,653(8.4)
작업요법사	417(2.1)
정신보건복지사	352(1.8)
영양사	258(1.3)
보건사	222(1.1)
이학요법사	132(0.7)
의사	92(0.5)
언어청각사	51(0.3)
기타 자격	2,202(11.2)

(*n*=19,688인 / 복수회답)

## 4. 수험자격

### 1) 수험자격

치매케어에 관련된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시험실시해의 **3월31일**부터 과거 **10년간**에 걸쳐 **3년 이상** 치매케어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치매케어 관련시설 등	대상이 되는 시설 등의 규정 없음
<b>3년 이상의 실무경험자</b>	시설 등의 책임자로부터 <b>3년 이상</b> 치매케어의 실무 경험 보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

### 2) 수험방법

	시험일
제1차 시험(필기)	기본적으로 매년 <b>7월</b> 첫째 주 일요일
제2차 시험(논술·면접)	기본적으로 매년 <b>11월</b> 마지막 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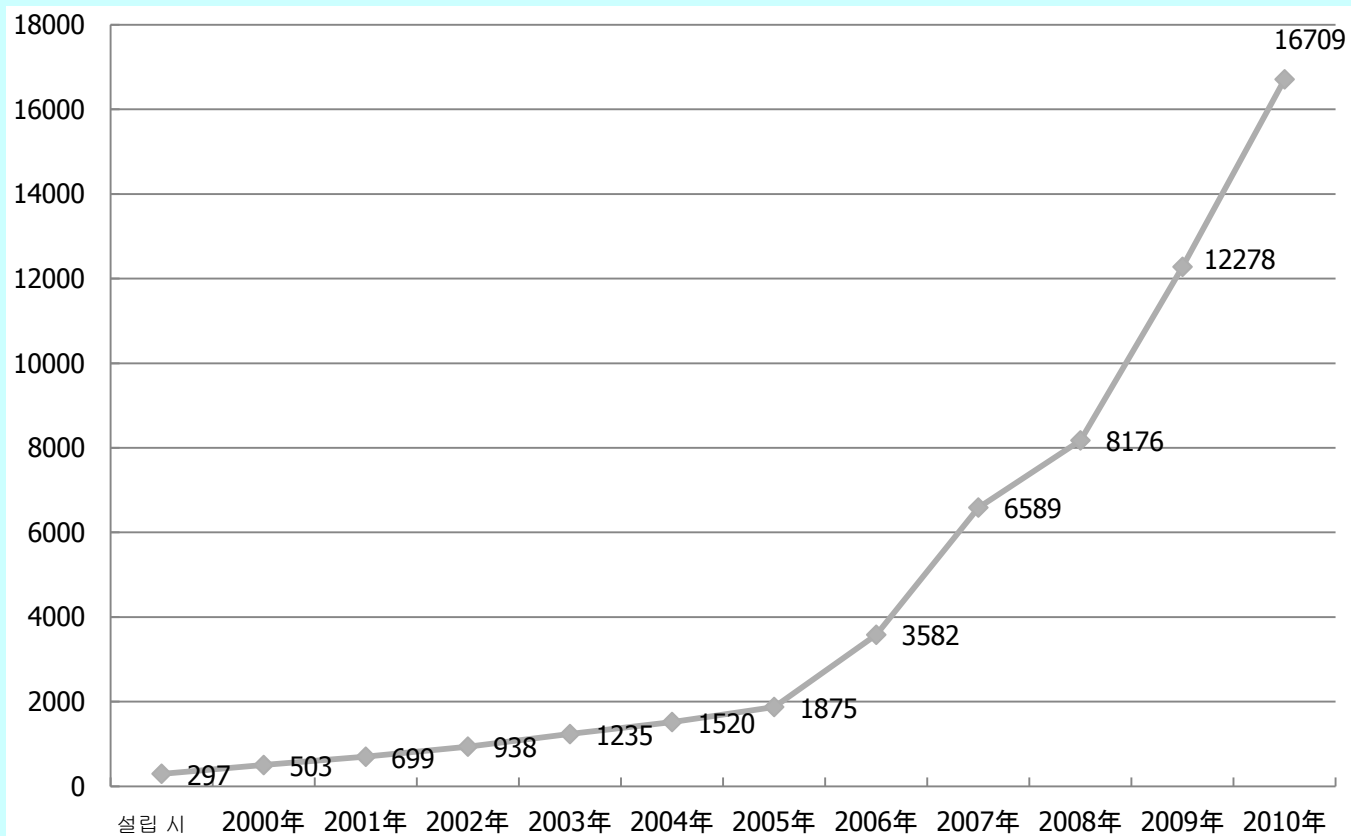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수험 가능



## 5. 시험분야

제1차 시험(필기)	<p>① 치매케어의 기초          ② 치매케어의 실제 I : 총론          ③ 치매케어의 실제 II : 각론          ④ 치매케어의 사회자원</p> <p>[합격기준]          각 분야에 있어 <b>70%</b>이상의 정답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p>
제2차 시험(논술,면접)	<p>[논술] 치매케어 사례에 관한 논술          [면접] 치매케어에 관한 테마를 토대로 그룹면접</p> <p>[합격기준]          다음의 <b>5</b>가지 조건을 채운자를 합격자로 한다.          (1)적절한 어세스먼트의 시점을 보유한 자          (2)치매를 이해하고 있는 자          (3)적절한 요양보호계획 작성이 가능한 자          (4)제도 및 사회자원을 이해하고 있는 자          (5)치매 환자의 윤리적 과제를 이해하는 자</p>

## 6. 일본 치매케어학회 회원수의 추이



## 7. 치매케어 전문사의 추이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합계
제1차시험	신청자	5,121	6,429	8,010	9,967	11,261	10,518	51,306
	수험자	4,948	5,313	6,848	9,717	11,214	9,282	47,322
	합격자	2,790	3,537	3,119	5,230	6,262	4,232	25,170
제2차시험	신청자	2,646	3,542	3,084	5,147	6,170	4,258	20,589
	수험자	2,637	3,513	3,061	5,104	6,166	4,258	20,481
	합격자	2,445	3,449	3,016	5,032	6,034	—	19,976

